

文대통령 “추석연휴 내수진작 기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열흘 쉬어... “사회취약계층 보호·물가·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세심히 챙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 기회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추석엔 오는 9월30일부터 한글날인 다음달 9일까지 열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안보가 엄중할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은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긴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딘가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면서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 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취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 성공을 부른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5일 센터 강당에서 취업에 희망하는 전주지역 여성 130여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성공을 부르는 준비된 나의 모습 만들기’를 주제로 한 취업인식전환특강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긴 추석연휴 동안 사회취약계층과 산업 사각지대를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결식아동 등 사

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 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에도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추석 물가와 관련,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조류독감)·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긴 연휴 기간 중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추석연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당부했다. /뉴스1

전주시, 베트남 호치민서 관광객 유치 활동

7일~10일 동남아 최대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관광홍보관·관광상담회 개최

전주시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해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인다. 전주시는 오는 7일부터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인 호치민 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해 베트남 지역 주요 여행사와 소비자, 해외 관광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지역 관광객유치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는 SECC에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와 함께 국내 회원도시인 부산시, 인천시, 통영시, 안동시 등 11개 TPO 회원도시와 함께 TPO 관광교역전을 열고 전주관광홍보관 운영과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상담회를 벌이는 등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지역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와

호치민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관광박람회로, 총 32개국 250개 기관 및 여행업체가 참가해 베트남 방문객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각 회원 도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상품개발을 협의하는 국제관광엑스포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지역 관광객유치를 위해 펼쳐지는 이번 전주관광홍보마케팅은 베트남 관광청이 주관하는 ‘제13회 호치민국제관광엑스포(ITTE 2017)’와 함께 진행되고, 호치민시가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국지

역 여행상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베트남지역 관광객유치와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시장 관료 개척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TPO 참가국 중심도시로서 이번 행사에서 관광홍보관을 운영해 베트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옥마을, 덕진공원 등 전주시의 대표관광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전통공예품, 한지, 태극선(부채) 등을 전시하여 전통문화관광도시인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TPO 회원도시 간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시장분석 및 마케팅 방안 등의 정보를 교류하는 등 향후 관광활성화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의회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전주시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의 불안을 일으켜온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북한이 지금까지도 비핵화의 결단과 정부의 국제사회의 대화의 노력을 받아들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과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과 항구적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민근 기자

완산경찰서 의경어머니회 신규회원 위촉식

완산경찰서는 5일 2층 소회의실에서 의경어머니회 신규회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과·계장 및 신규회원, 타격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

행했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신규 회원님들의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원들이 건강하고 보람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환전업자 검거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와 환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8,남)씨를 구속하고 환전업자 B(48,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장에 7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분 확인된 단골 손님들에게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위경찰단속을 피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챙긴 정확한 부당이득과 범행 규모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불법 오락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금은방 귀금속 상습절도 30대 구속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 절도 혐의로 A(39,여)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에 전주시 중화산동에 소재한 한 금은방에서 3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인 척하며 금은방에 들어간 A씨는 금은방 주인인 B씨에게 다른 귀금속을 더 보여달라며 B씨가 다른 귀금속을 가져러 간 사이 기준에 위에 올려져 있던 귀금속을 훔쳤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생활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